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 나서

전주시, 11개 행정 TF팀 가동... 유형별 대상지 선정·의견 수렴 등 정부공모 적극 대응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행정 TF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문별 개발사업보다는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온 민선 6기 전주시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 전주형 도시재생 구현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 기획예산과, 생태도시계획과, 건축과, 주거복지과, 공동체육성과 등 8개 부서 11개 팀으로 구성된 행정 TF팀을 구

성·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전국 100곳에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해 구성된 행정TF팀은 △사업모델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주거복지 및 주거지재생 △사회적경제 연계 및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공동체활성화 △시민참여 및 정책홍보 등 분야별 담당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가지 사업유형인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

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각각의 유형별 맞춤형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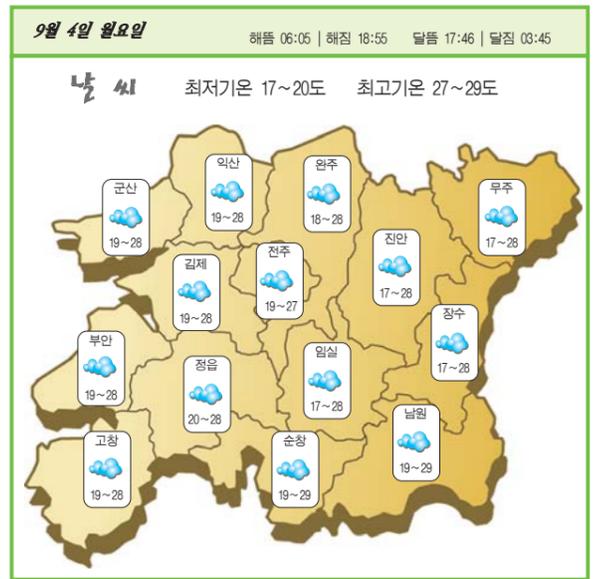
시는 향후 선정된 각 유형별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확대TF회의, 도시재생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검토, 국책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가를 확보하고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후 주거지역을 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8일 8개 부서 부서장과 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첫 회의를 열고, 전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일자리창출 △사회적 통합의 4가지 목표와 함께, △대안적 주거지 재생 △역사문화 재생 △창조적 재생 △세대공존형 재생의 전주시만의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TF팀 운영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전주형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 기관·기업 간 산학협력 협약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는 최근 대학 인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지역 기관·기업 간 산학협력 협약'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신을재 사무국장, 세빌호텔 이인수 총지배인,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이 박정철 이사장 등을 비롯해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장, 인문산학협력센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협약 결과 인문산학협력센터와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정보 및 자료 공유, 보이는 라디오 방송 촬영·녹음·편집 등에서 상호 협조하고, 세빌호텔은 군산에 숙박하며 머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이 캐리커처를 통한 산업화, 스토리 개발 및 콘텐츠 제작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장영철 인문산학협력센터장은 "첫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협조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이 많이 쌓여 가리라 확신한다"면서 "더욱 많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충실한 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문산학협력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시대적 사회변화 대응하는 인재 양성 공로

김도중 원광대 총장, 대한민국 경제리더 인재경영 부문 대상 수상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201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2017 대한민국 경제리더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도중 총장은 인재경영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도중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원광대 총장을 맡아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창직(創職), 창업(創業) 능력을 길러 미래직업을 창조하는 경영철학 실천에 앞장서 창업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에 힘쓰고, 4차 산업혁명과 문화자본주의 영향에 따른 시대적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융·복합적인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3관 신사: 다문화(國際紳士, trans-national), 여러 학문 영역을 이해하는 학제신사(學際紳士, trans-disciplinary), 다양한 종류의 직업 능력을 갖추는 직제신사(職界紳士, trans-competency) 육성' 과정을 통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과감히 학사구조를 개편해 학생 및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대학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도 받았다.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2017 대한민국 경제리더 인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도중 총장은 육종연구를 위해 중국 연변대와 공동으로 북방농업연구소를 운영하고, 김립연원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를 설립해 수익창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의 기틀을 세웠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도 중앙농업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베트남 칸타대학교와 남방농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를 중심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 육종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새로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종자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도중 총장은 "모든 구성원이 협력함으로써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대학 4.0시대를 맞아 창조적인 경영환경 개척에 앞장서고, 신산업 적응형 인재, 문화콘텐츠 가공이 뛰어난 소프트웨어형 인재 등 새로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대 강오형 팀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군산대학교 정보산업원에 근무하는 강오형 팀장(사진)이 평소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강오형 팀장은 군산대학교에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학내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환경 개선, 학사·행정업무 프로그램 구축 및 정보인프라 조성, 정품 소프트웨어 확산, 학내 정보보안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헌신해 왔다.

또한 적시성 있는 국가장학금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했고, 국공립대학 무선랜 공동 활용방안을 구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군산=장현 기자

학교기숙사 사회배려대상 우선 선발

전북교육청, 입사기준 등 운영규정안 확정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기숙사의 교육기회 균등 및 민주적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기숙사운영규정'을 마련,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 협의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갖고 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의 새로운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안)에는 ▲기숙사 학생 선발 시 성적우수자 이외 우선선발 대상자(사회적배려대상·원거리통학자) 일정비율 우선입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겨져 있다.

도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학교(120교)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실제적으로는 우선선발대상자를 일정비율(20~30%)이상 운영하고 있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33교) 중 일부에서 학교별 기숙사운영규정에 학생선발을 성적순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토론했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 결과 학교장의 의견 및 제안 내용은 ▲공교육시설인 기숙사도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에 대한 상징적 표현(규정) 필요 ▲우선선발대상자에 선발의 의무 용어는 지양하고, 우선 선발비율은 연차적으로 비율 증가(1차년도 20% 2차년도 30%) 실시 ▲원거리통학생에 대한 기준 구분 필요 등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운영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용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주최 | 장수군
주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